

# 전망 없는 세계에 대한 대중들의 심미적 저항

메타 비판적 시각에서 본 대중문학의 의미...  
대중문학과 독자의 중층적 관계 주목해야

조성면 | 문학평론가

대중문학과 그것의 대중적 수용은 퇴행적이고 상업주의적이지만, 동시에 저항적인 의미도 있다. 대중문학은 분명 시장의 논리에 지배되며, 환상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판매되는 문화상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총체성을 잃은 현실세계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소설에 대한 종래의 비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을 통해 우리의 문학과 역사적 현실을 객관화하는 노력이다.

대중소설과 독자의 관계는 실로 복잡하고 중층적이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지극히 정형화된 몇 개의 연역적인 전제에 근거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테면 대중소설을 읽는 독자를 은연중에 머리가 텅 빈 '대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과 대중소설은 대중들의 퇴행적 욕망과 도피주의에 영합하는 저급한 상업주의 문학이며 기존의 이념과 질서에 대한 대중들의 동의와 복종을 이끌어내는 이데올로기적인 오락물이라는 비판들이 바로 그러하다.

##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비판에 '대한' 비판으로

이 무지막지한 연역법들은 엄정하고 실증적인 검증을 거친 판단이기보다는 일종의 유사과학이며, 삶의 비의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구경적(究竟的) 형식 또는 거대한 계몽의 기획에 심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학만을 문학으로 인정하려는 일종의 구별짓기와 배타의 논리다. 대중사회론과 비판이론에 기원을 둔 이런 관점은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문학의 위기를 대중에게 전가시키거나 문학(화)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문화산업에서 찾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중소설 비판은 대중소설 자체에 대한 비판적 탐색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대중소설에 대한 비판으로, 다시 말해서 대중소설이 창작되고 유통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비판과 윤리적 성토로 귀결된다.

엄숙한 문화주의자들처럼 '밑으로부터의 타락'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비판이론가들처럼 이데올로기와 상업성이 결합된 문화산업의 부정적 측면에 강세를 둔 재래의 인식론으로는 대중소설과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기 어렵다. 그것은 대중소설과 독자가 구축하고 있는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중층적일 뿐만 아니라 대중소설 수용 현상 또한 위와 같은 냉담한 인식론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소설의 대중적 수용 현상에 대한 과거의 비판들을 또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객관화해 보려는 노력, 곧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비판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 독서가 매개하는 대중문학과 독자의 '이상한' 관계

대중소설을 읽는 주요 독자층이라 할 수 있는 대중은 그동안 우중(愚衆)으로 오해돼 왔다. 이와 관련해 현대문화연구소의 핵심 이론가였던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대중이란 현존하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사람들을 '대중'으로 바라보는 경멸적인 시선 내지 방법만이 있을 따름이라는 좀더 진일 보한 관점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대중은 실체가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내재된 다양한 실존적 양상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중 문화가 제공하는 문화적 대기권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동시대인들은 자신의 주체적 의지나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관객으로 시청자로 때로는 대중소설을 읽는 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문학이 독자들의 환상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대중소설의 문제점에 대해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독자를 지배 이데올로기에 놀아나는 우중으로 간주하지 않는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대중문학을 포함한 일체의 대중예술을 자기 표현의 수단을 지니지 못한 대중들의 저항 방식으로 읽어내려는 윌리엄스식의 독법에 무조건 동의할 필요도 없지만, 기왕의 관성에 떠밀려 독자를 어리석은 대중으로 간주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판단기준으로 작품들을 선택하고 있으며 작품 속의 환상과 실제의 현실을 혼동하지 않을 만큼 현명하다는 평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독서를 매개로 한 독자와 대중문학의 관계는 이보다 매우 복잡하

고 중층적이다. 주지하듯 대중문학은 출판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지배되며, 독자들의 주제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되거나 주어지는 문화상품이다. 자기표현 수단을 갖지 못한 독자들은 여기에 의지해서 자신의 환상과 욕망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독자들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이나 꿈을 문화상품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욕망이 이 상품에 의해 선택당하고 복제된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들 문화상품이 대중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유혹하면서 또 다른 독서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것이다.

대중문학과 독자의 관계를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보지 못하면, 이 모든 과정은 은폐되고 마치 독자들이 욕망의 해소를 위해서 대중문학을 구입하고 소비(독서)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들의 욕망이 자본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상품으로서의 대중문학은 독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허약한 존재들이기도 한 것이다. 세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은 이를 입증하는 예다. 도서시장에 헤아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품들 가운데 선택받아 살아남은 극소수의 대중문학 작품들, 그것이 바로 베스트셀러다. 이와 같이 대중문학과 독자는 서로를 옹호하는 상호중속적이고 순환적인, 이상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학의 수용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복합적이고 초월적인 위치에서, 곧 메타(meta)적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현실로의 귀환이 예정된 도피

독자들이 대중소설을 읽는 이유와 동기는 제각기 달라도 그 효과나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다. 항상 반복되는 비판들처럼 그것은 지루한 일상과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즐거워지기 위해서 복용하는 일종의 환각제다. 물론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기보다는 유보이자 도피며, 자신을 고통스럽고 권태롭게 만드는 현실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의 정신과 감정)을 변화(사실은 마비)시키게 된다. 여기에서 독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결핍이며, 결국 책장을 덮자마자 독서 이전의 현실로 다시 허망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문학을 통한 독서의 경험 또한 언제나 동일한 것일 수밖에 없다. 존 카웰티(John G. Cawelti)가 대중소설(popular fiction)을 공식문학(formula literature)으로 지칭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중문학은 자신이 속한 장르의 공식과 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대중소설은 주어진 공식과 도식에서 이탈하는 순간, 대중문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잃고 다른 장르의 문학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중소설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텍스트만이 끝없이 반복·변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새로운 작품을 읽으려 해도 독자들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의 작품만을 읽게 되는 반복성을 경험하게 된다. 대중소설 읽기는 이처럼 허망하고 반복적이며 순환적이다.

그러면 독자들은 정녕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중소설을 읽는다. 독자들은 대중소설을 통해서나마 현실에서는 절대 이뤄지지 않은 권선징악과 해피엔드, 그



대중문학 독자들의 욕망이 자본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상품으로서의 대중문학은 독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자기의 존재를 실현할 수 있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소설 코너.

리고 재래의 가치들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위안을 얻게 된다. 이를 두고 근엄한 교양인들과 학자들은 대중소설이 독자를 지배 이데올로기와 재래의 관습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대중으로 만들 것이고 문학의 전반적 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개연성만 있을 뿐인 일면의 진실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소설을 읽는다고 해서 독자가 갑자기 우증이 된다거나 창조적인 문학활동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거나 자본주의 체제가 더욱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 때문이다. 게다가 대중소설의 해악으로 항상 지적되는 도식성·오락성·도피주의 또한 대중소설의 한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근대화와 함께 수많은 모순에 의해 분열되고 그 어떤 합리적 전망과 총체성을 부여해 주지 않는 세계와 대면한 대중들의 심미적(퇴행적) 저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중소설의 도피주의 역시 현실로의 귀환이 예정된 도피며, 이것을 모르고 있는 독자는 없다.

이와 같이 대중문학과 그것의 대중적 수용은 퇴행적이고 상업주의적이지만, 동시에 저항적이고 중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화 현상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소설에 대한 재래의 비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우리의 문학과 역사적 현실을 객관화해 보는 일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찌서 우리의 문학이 움베르토 에코, 밀란 쿤데라, 톨킨, 베르나르 베르베르, 조앤 롤링 등의 소설과 같은 근사한 대중소설들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반성해 보는 일이다.●